

# 언간(諺簡) 자료의 특성과 가치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in the Joseon Dynasty”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국어사)

Mun-hwan Hwang,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Academy of Korean Studies

# 목 차

## (Contents)

### [17:00~17:40]

1. 강좌 소개(Introduction)
2. 조선시대의 언문(諺文, vernacular script)과 언간(諺簡, vernacular letters)
  - (1) 조선시대의 '언문'
  - (2) 조선시대 언간의 실용 범위
3. 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1) 일상성(日常性, ordinariness)
  - (2) 자연성(自然性, naturalness)

### [17:50~18:30]

3. 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3) 구어성(口語性, colloquialness)
  - (4) 개인성(個人性, individuality)
  - (5) 사실성(事實性, reality/historicity)
4. 언간 자료의 가치(價値, academic values)
5. 참고문헌(references)
6. 질의 및 응답(questions and answers)

## 1.

## 강좌 소개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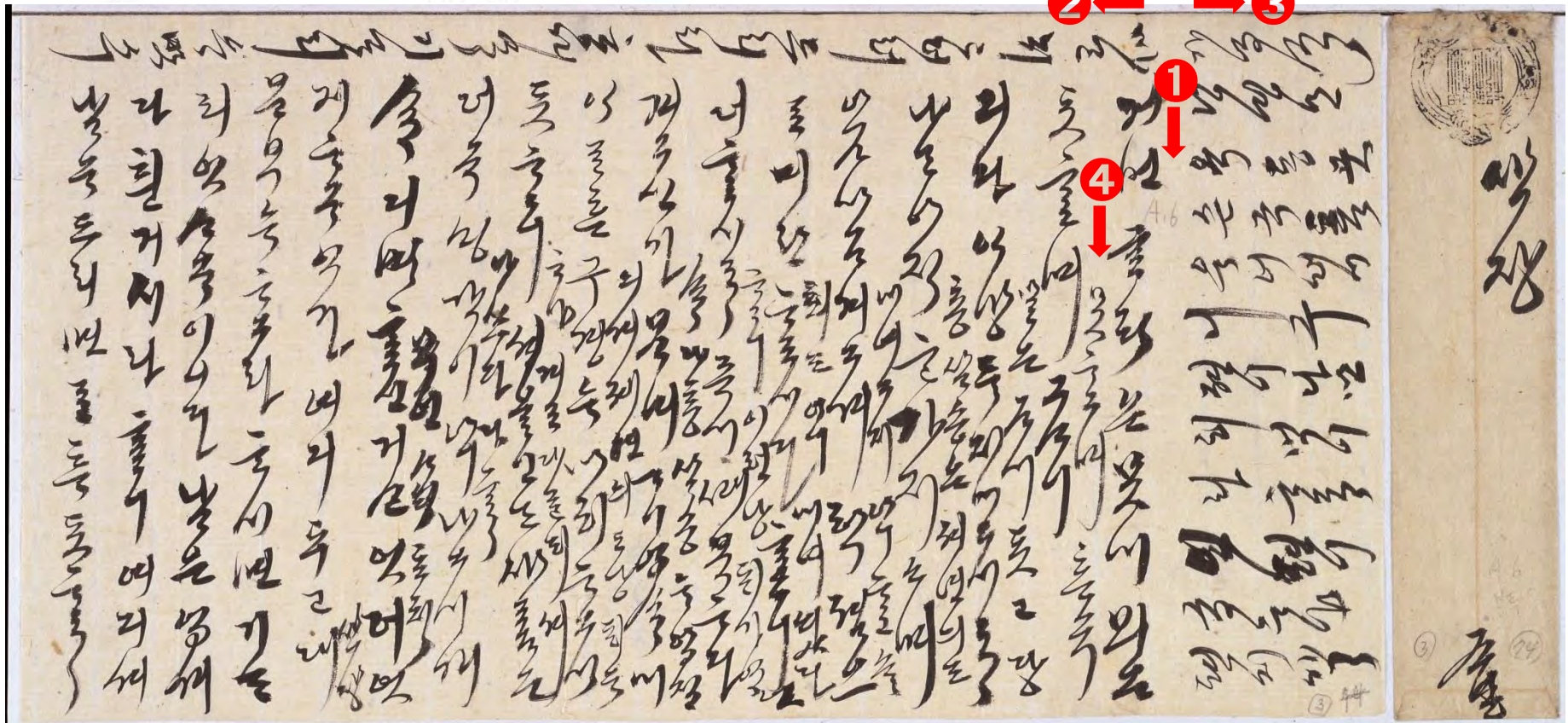
『언간: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황문환, 역락, 2015)

# (1)

## 언간 읽는 법 (Introduction to how to read eon' gan)

- 내지와 봉투, 여백 및 행간 활용, 발신 일자, 발신자 ('상장')
- 한글 편지 → 언간(諺簡)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언간 - 1818년 추사 김정희가 아내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



## (2) '언간'이라는 명칭 <50~51>

※ 학술 용어로 정착: 김일근(金一근, 1959, 1986/1991)

- ① “한글이 조선시대 내내 ‘언문’으로 불렸던 점을 반영할 수 있다. 언문으로 쓰여진 편지가 ‘언간’으로 불리는 것은 **당시 ‘언문’의 지위(地位)와 직결** 되는 자연스러운 명명(命名)일 수 있다.”
- ② “‘언간’이 ‘언문’과 관련됨으로써 **시기상의 상하한(上下限)도 자연스레 설정**될 수 있다. 한글이 ‘언문’으로 불린 시기는 한글이 창제된 때(1443년)부터 한글이 ‘국문(國文)’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때(1894년)까지 조선시대 거의 전 범위에 걸친다.”

## 2. 조선시대의 언문(諺文)과 언간(諺簡)

“언간(諺簡)’은 특별히 조선시대에 한글로 씌어진 편지를 이른다. 이러한 명칭은 당시의 한글이 ‘언문(諺文)’으로 불리면서 **문자(文字), 진서(眞書) 등으로 지칭된 한문(漢文)과 대비**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언문’과 ‘한문’은 문자 사용상 일종의 **이중체계(digraphia)**를 이루는 가운데 **사용 계층과 영역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21>

# 조선시대의 언문(諺文)

## 한문(漢文)

= 문자(文字), 진서(眞書)

-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

## 언문(諺文)

= 훈민정음, 한글

-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이 제한됨.
- '국문(國文)'으로서의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한문을 보완하는 역할.

## 한문편지

- 당시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  
→ 주로 남성 간에 오감.
-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

## 언간(= 한글편지)

-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 → '내간(內簡)'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득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  
⇒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



# (1) 조선시대의 '언문'

## ① 사용 영역의 제한

“당시의 한글은 ‘훈민정음’(흔히 ‘정음’으로 약칭)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언문’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언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정당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은 데서 보듯이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22>

## ② ‘언문’의 의미 → 우리말을 ‘언어(諺語)’로 지칭하는 것에 짝하여 언문(諺文)은 “우리말에 쓰는 문자(文字)”를 지칭 <홍기문(洪起文, 1946 : 하46~48)>

“문자(文字) 자체(自體)가 성음(聲音)을 정확(正確)히 표시(表示)하는 점(點)에 잇서서 정음(正音)이요 우리말에 사용(使用)되는 점(點)에 잇서서 언문(諺文)이다. 요(要)컨댄 정음(正音)은 문자(文字)의 본질(本質)을 표시(表示)하는 이름이요 언문(諺文)은 그 용처(用處)를 표시(表示)하는 이름”



# (1) 조선시대의 '언문'

## ③ '諺文/언문'이 사용된 실제 용례

### a. 일본에서 쓰는 문자도 '諺文'(혹은 '倭諺')으로 지칭

“국중에 쓰는 언문은 48자가 있는데, 자형은 모두 진서 수미의 점과 획을 잘라 만들었고(國中 所用諺文有四十八字 字形皆截眞書首尾點畫)” <申維翰, 海遊錄(1719?), 下: 附聞見雜錄> ;

“以倭人不解文字 依方言以四十八字分作倭諺 其諺之雜用文字者酷似我國吏讀 不雜文字者酷似我國諺文 倭人之號爲能文者 只用諺譯文字則了不能知” <姜沆(1567~1618), 看羊錄, 賊中封疏>

### b.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문자를 '언문'으로 지칭: '만주 언문', '(서양국) 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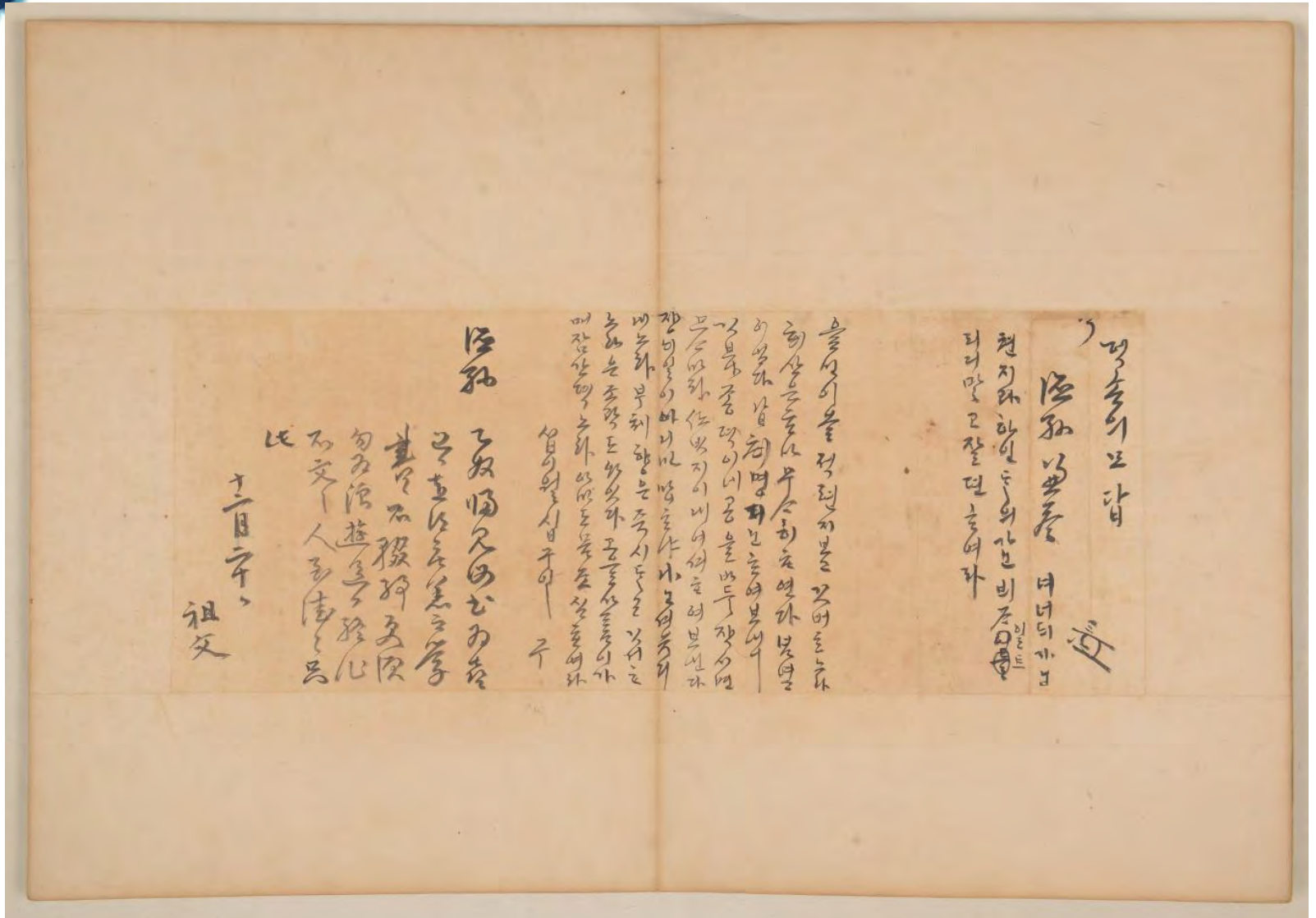
가정이 고평이 이 슝은 만주 슝이라 이 흑룡강 7의 이시니 이곳의셔 동북으로 삼천 니 밧기라 그곳은 한어를 모르고 진서를 쏘흔 승상티 아니하니 다만 만주 언문과 만주말을 알 썩름이라 <을병연행록(장서각본, 18세기, 권3, 37면)> ; 무르디 서양국은 중국 진서를 아지 못흐면 필연 중국 서적이 업술 거시니 도를 비호는 사람은 무슴 글을 보노뇨 송녕이 고평이 다만 아국 언문을 힝힐 분이오 온갓 서적이 이시나 다 아국 사람의 문든 글이오 아국 언문으로 지은 거시니 말이 비록 다르나 도리 의논흔 말은 중국과 다름이 업노니라 <을병연행록(장서각본, 18세기, 권12, 11~12면)>

## (2) 조선시대 인간의 실용 범위

### ① 실용 범위의 제약

- a.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22〉
- b.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23〉

# (2) 조선시대 인간의 실용 범위



※제약의 실제 사례

## (2) 조선시대 인간의 실용 범위

『先札』에 수록된 송규렴 언간

(1683~1708년 사이 송규렴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동시에 쓴 편지)

발신자(宋奎濂, 사대부 남성)가 여성(며느리)에게는 언문으로 남성(손자)에게는 한문으로 편지

- 봉투: '덕손의 모 답', '德孫兼答'

- 언문: 시아버지('구') → 며느리 / 한문: 할아버지('祖父') → 손자('德孫')

## (2) 조선시대 인간의 실용 범위

### ② 인간 실용의 단계적 확산

“‘언간’이 특정 계층과 관계없이 폭넓게 실용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문’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 양반층으로, 다시 중인층을 포함한 평민이나 하층민으로 단계적 확산을 거친 결과였다.” <23> (백두현 2001: 201~207)

※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16세기 중후반): 사대부가 집안의 가족 간에 오간 언간 189건  
→ 훈민정음 반포(1446) 후 100년이 좀더 지난 뒤의 일

## (2) 조선시대 인간의 실용 범위

왕실

- 일찍부터 인간이 자주 왕래
- 초기 왕실 인간은 찾아보기 힘들
- 궁중과 민간 사이에 서로의 필적이 남으면 안 된다는 금기 존재

양반층

- 현전하는 인간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섬
- '순천김씨묘출토인간(順天金氏墓出土諺簡)' (16세기 중후반, 189건)

평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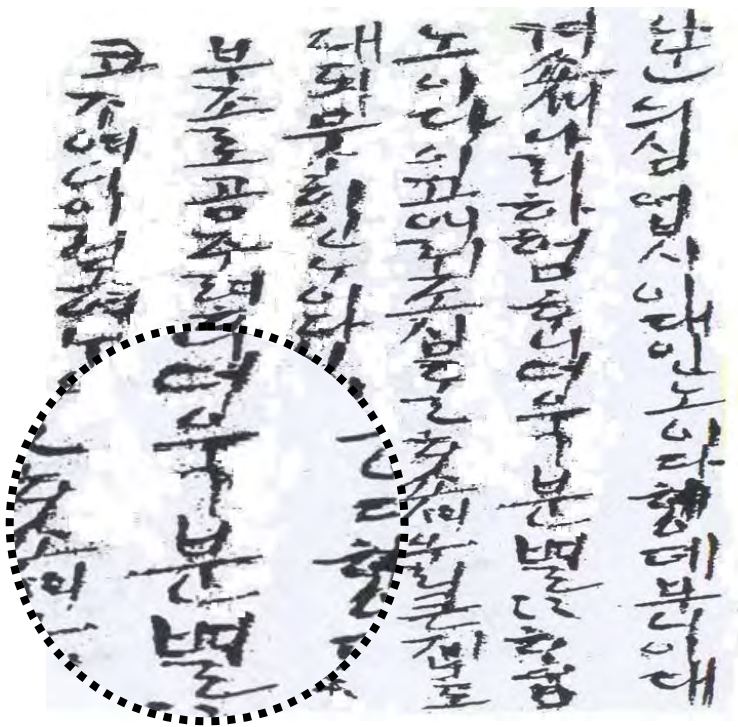
- 방각본 \*『언간독』의 간행 → 남성간에도 인간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남  
\* 『언간독』: 각종 인간에 사용되는 대표적 규식(規式)을 모아 놓아 편지 쓰기의 교과서 구실을 해 오던 책

하층민

- 방각본 \*『정보언간독(增補諺簡牘)』의 유통  
→ 인간 사용이 하층민에게까지 보편화된 현실 반영  
\* 『정보언간독』: 상전과 노비 사이에 오가는 인간의 규식인 '고목(告目)'과 '답배[答牌]'의 규식을 포함

# 언간 서체의 변모

사대부家 언간의 서체 변모 -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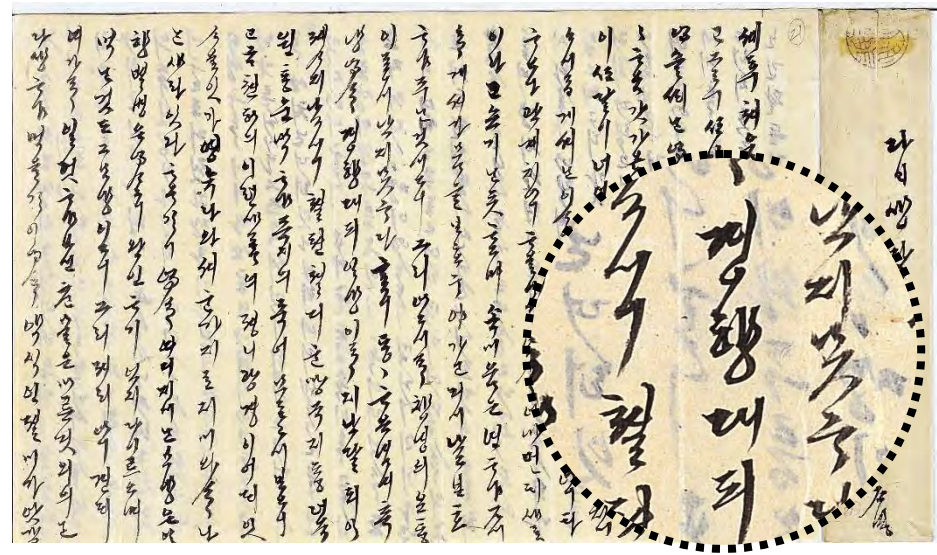
효빈체(效顰體) : 눈썹을 찡그린 것과 같이 투박한 서체. 한문 서체를 투박하게 모방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낱낱의 글자가 떨어져 있고 흘러 쓴 예도 거의 보이지 않음.

# 언간 서체의 변모

사대부家 언간의 서체 변모 - 18~9세기



**여필(女筆) :** 세로획의 위치가 일정한, 이른바 궁중의 '궁체(宮體)'에 가까운 서체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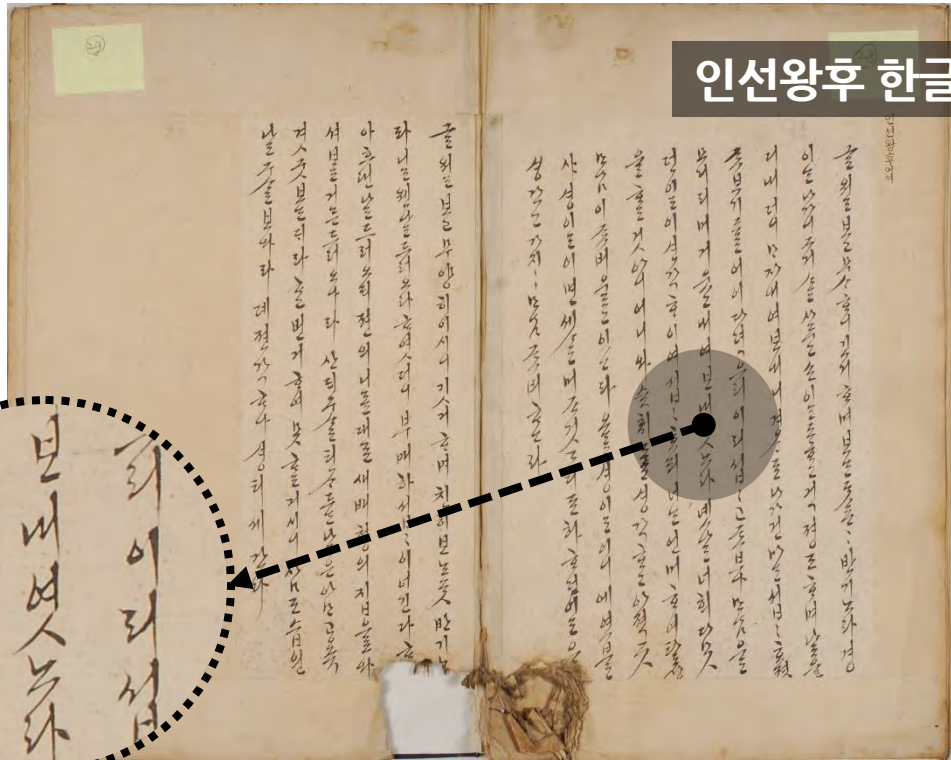
**남필(男筆) :** 여러 글자에 걸쳐 흘러쓴, 극도의 초체(草體, 흘림체)를 보여 주기에 이름.

➔ 남녀 모두 후대로 갈수록 언간 사용에 익숙해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 언간 서체의 변모

궁체(宮體, place style)의 성립



인선왕후 한글편지

- 조형(造形)의 중심축이 중성 | 에 놓이면서 세로획의 위치가 일정
- 한글 전용으로 일관
- 한글 자체의 독자적 조형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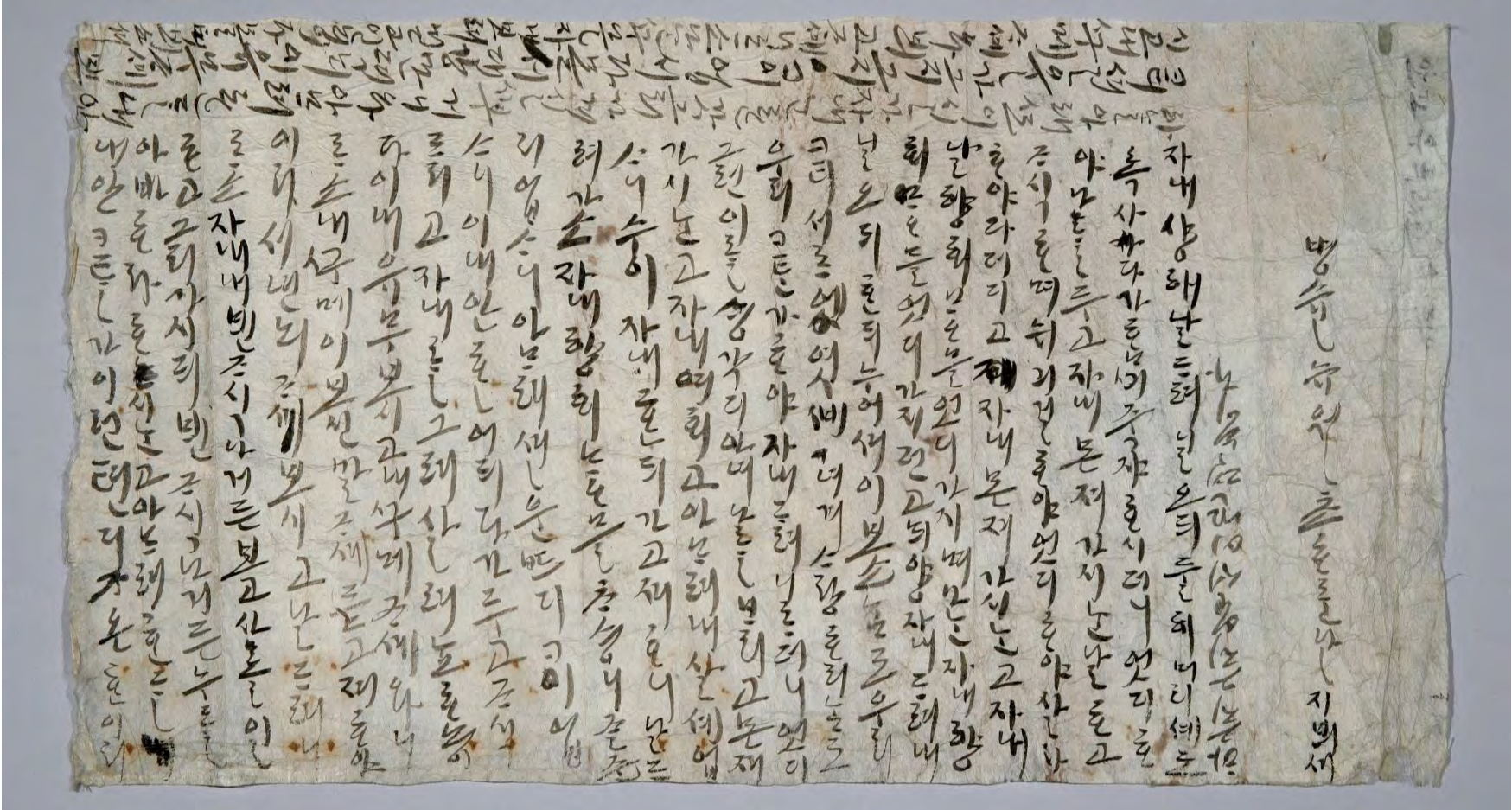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1) 일상성(日常性, ordinariness)

① “한글 문헌 가운데 ‘일상성(日常性)’이 두드러지면서 보편적으로 실용된 자료를 든다면 단연 ‘인간’이 될 것이다. ... ‘인간’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실용이 제한되었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일상의 생활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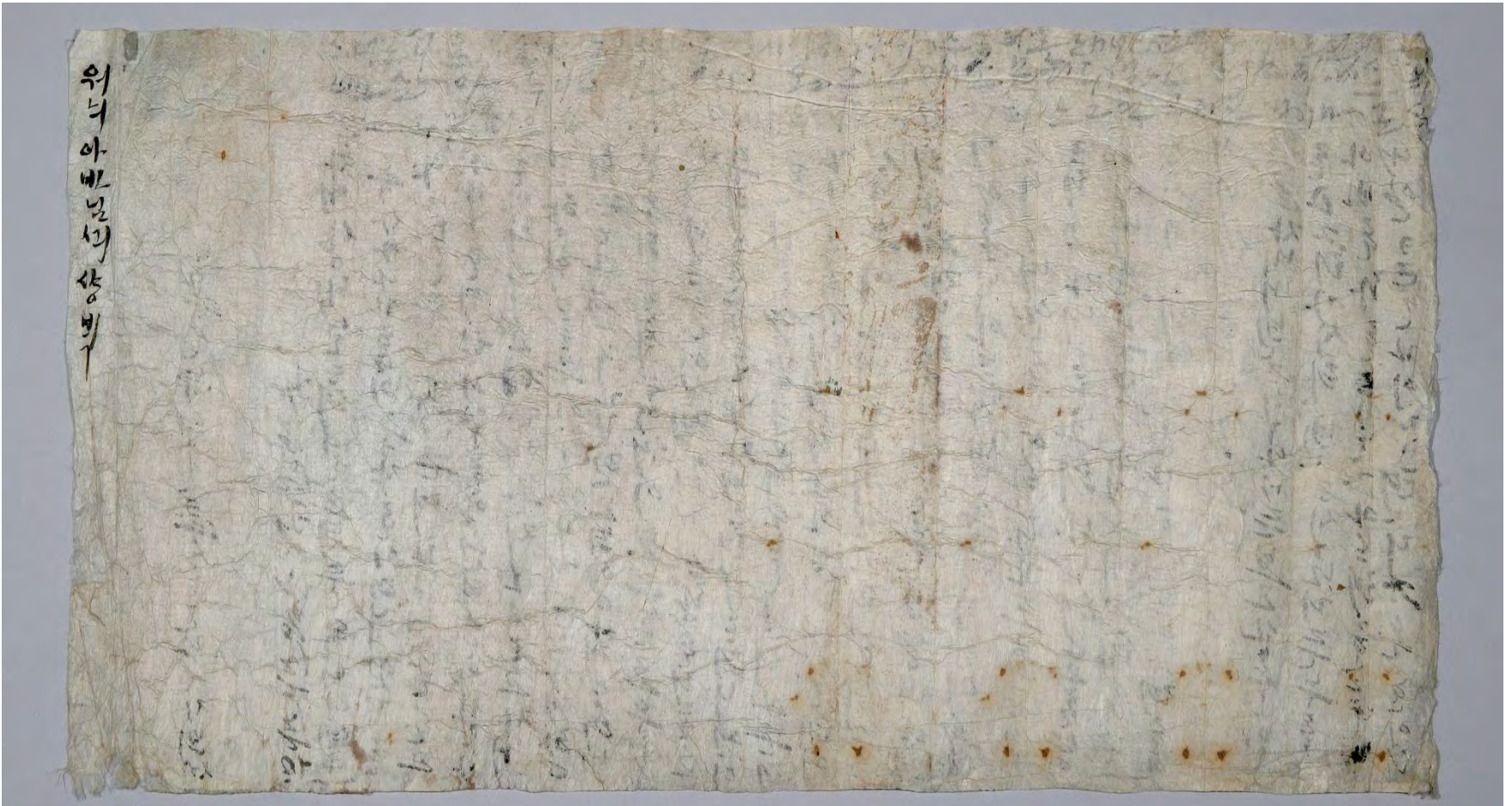
# <예시1> 민간의 경우 → 관중서(棺中書, letter in the coffin)

1586년 이응태(李應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편지



# <예시1> 민간의 경우 → 관중서(棺中書, letter in the coffin)

1586년 이응태(李應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편지



# <예시1> 민간의 경우 → 관중서(棺中書, letter in the coffin)

1586년 이응태(李應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편지

... 자네 상해 날드려 널오디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흠씩 죽자 하시더니 엇디 해야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 날하고 조식하며 뉘 걱결해야 엇디 해야 살라 해야 다 더디고 자네 먼저 가시는 고 자네 날 향히 모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네 향히 모으물 엇디 가지던고 미양 자네드려 내 널오디 헉디 누어서 이 보소 남도 우리갓티 서로 에엿싸 녀겨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갓튼가 해야 자네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싱각디 아녀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고 자네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한테 가고져 하니 날 드려가소 자네 향히 모으물 초싱 니줄 주리 업스니 아무려 설운 뿌디 기 업스니 이 내 안흔 어디다가 두고 조식 데리고 자네를 그려 살려뇨 헉뇌이다 이 내 유무 보시고 내 꾸메 조세 와 니르소 내 꾸메 이 보신 말 조세 듣고져 해야 이리 서 년뇌 조세 보시고 날드려 니르소 ...

<아내→남편(李應台)>(1586년)

[해석] ... 자네 평소 날더러 이르되 둘이 머리가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나하고 자식하며 누가 분부하여 어찌 하여 살라 하고 다 던지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자네가 날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찌 가졌던고. 매양 자네더러 내 이르되, 한데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뻐 여겨, 사랑하는 것이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더러 일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고. 자네 여의고 어떻게든 내 살 힘이 없으니 쉬(=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자네 향해 마음을 차생(此生) 잊을 바가 없으니, 어떻게든 서러운 뜻이 한없으니, 이 내 마음은 어디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며 살겠는가 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 내 꿈에 이것(=편지) 보신 말 자세히 듣고자 하여 이리 써서 넣네. 자세히 보시고 날더러 이르소. ...

〈예시1〉 민간의 경우 → 관중서(棺中書, letter in the coff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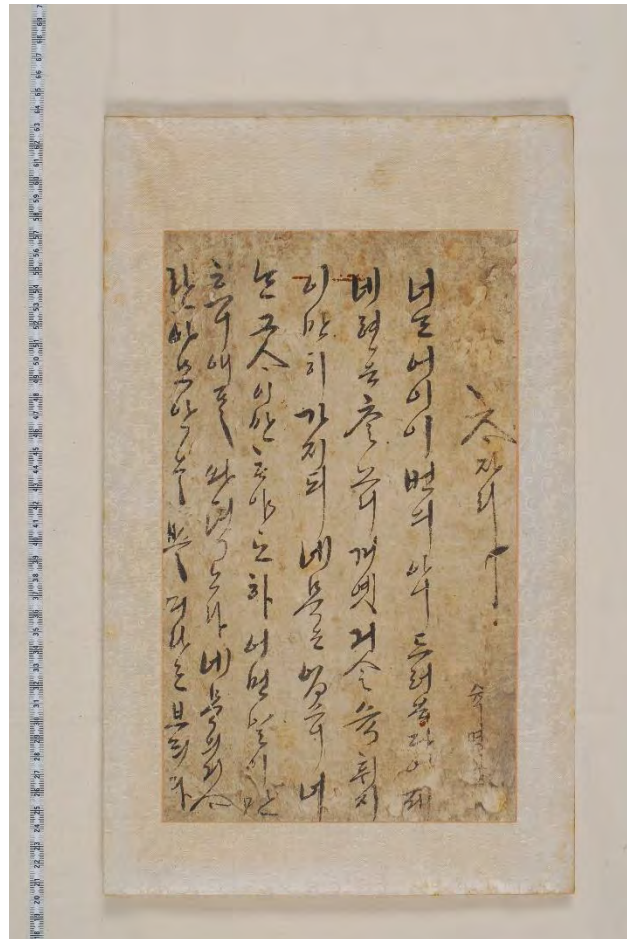
아내가 자신의 머리털을 섞어 만든 미투리



# <예시2> 왕실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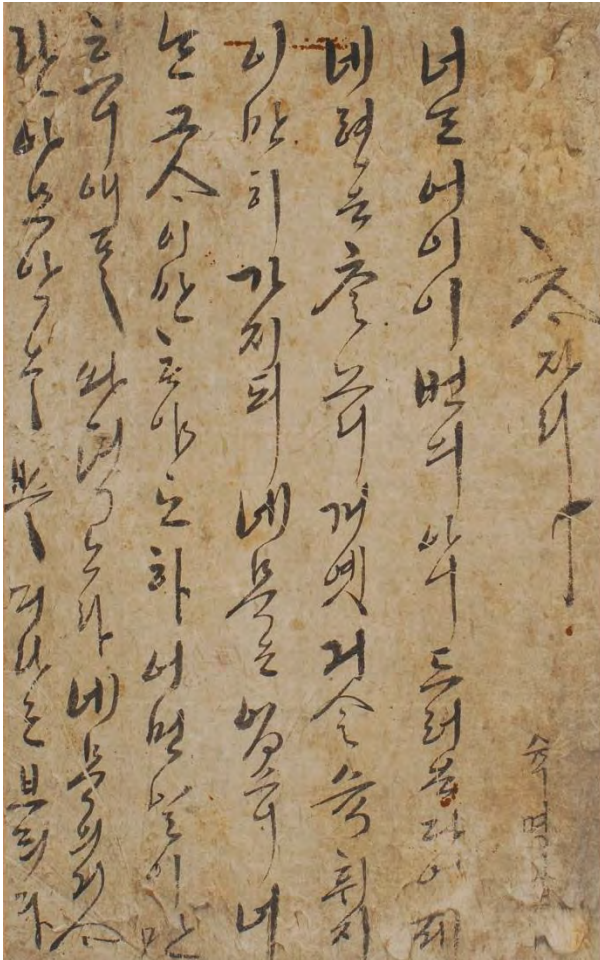
효종대왕(孝宗大王) 한글 편지

1652 ~ 1659년 사이 효종(孝宗, 1619 ~ 1659)이 둘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 ~ 1699)에게 보낸 편지



# <예시2> 왕실의 경우

효종대왕(孝宗大王) 한글 편지



너는 어이 이번의 아니 드러온다 어제 네 형은 찰  
노리개엿 거슬 숙휘지이 만히 가지되 네 묵은 업  
스니 너는 그 스이만 하야도 하 어떤 일이 만흐니  
애들과 덕노라 네 묵의 거스란 아모 악을 뿌디라  
도 브디 다 츠자라

<아버지(孝宗大王)→딸(淑明公主)>(17세기 중엽)

[해석] 너는 어찌 이번에 아니 들어왔느냐? 어제 네 형[淑安公主]은 찰 노리개 같은 것을 숙휘(淑徽, 숙명공주의 동생)까지 많이 가졌는데 네 묵은 없으니, 너는 그 사이만 하여도 하도 애먼(=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으니 애달파 적노라. 네 묵의 것일랑 아무런 악을 쓸지라도 부디 다 찾아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정(父情)이 나타남.



효종대왕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1) 일상성(日常性, ordinariness)

② “언간이 이렇듯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하는 수단이었기에 언간에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 **당대의 일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난다.”〈188〉 →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실제 어휘라는 점에서 언간은 일상 어휘의 보고(寶庫) [긱브다, 아므라타 없다, 툭툭하다 등]”〈190〉

③ “언간 자료에는 고유어도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였던 한자어 또한 그 용례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자어를 추출하여 용법과 의미를 정리한다면 **기존 한자어 사전뿐 아니라 현대 국어사전의 한자어 표제어나 용례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할 가능성**”〈190〉

# 3. 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2) 자연성(自然性, naturalness)

① “언해(諺解)로부터 자유로운 점” → “현전하는 판본 자료는 대부분 다른 언어 (한문 포함)를 한국어로 번역한 ‘언해’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러한 언해 자료에서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주로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번역의 영향에 관한 한 언간 자료는 언해 자료의 가장 대척점(對蹠點)에 놓일 자료” <193~194>

② “언간 자료는 어느 문헌의 언어 질서가 번역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 <194>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예시 : 어순(語順, word order)의 경우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순은 '물명(Noun) + 수사(Numeral) + 단위명(Classifier)'  
의 순서 → 인간에서는 100% 이러한 어순으로만 등장

- 이 여섯 마리 마 하나히 콩닷되딴흔뭇곰 햏야 통히 햏요니 은두돈을 뿌고  
(這六箇馬 每一箇五升料一束草 通筭過來 盤纏着二錢銀子)

〈번역노걸대(1510년대) 상: 11b~12a〉

※의역(意譯, thought-for-thought translation)

- 이 여섯 물에 每 하나히 닷되콩과 혼뭇집히니 대되 햏니 大概 盤纏을 두돈은을  
쓰느니 (這六箇馬 每一箇五升料一網草 共計來 大概用盤纏二錢銀子)

〈중간노걸대언해(1795) 상: 10b~11a〉

※직역(直譯, word-for-word translation, literal translation)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③ “번역과 무관한 ‘자연성’을 중시할 때 **인간 자료는 언해의 문체와 구별되는 독자적 산문 문체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196>

→ “언간의 문체가 한국어 산문 문체의 형성에 적극 기여”(金一 根 1986/1991: 160)

※예시 : ‘-는다, -었다’ 문체의 성립 (개화기 이후에 보편화)

- 네 병은 었더니 네 오라비도 스월 보름씩 **난다** 싱원도 여쇄 무거 여게 가니라 옥천 아기도 제 지비 **갓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032(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 → 순천김씨(딸)>

- 예는 상후 문안 만안호오시고 동궁 제절 티평 ” 하시니 축슈 ” 하며 나는 **훈가지다** 오늘 일기 극열 **이다** 묘동희는 근니 소체헌 전네가 업셔 오늘 검교 차하를 호얏다 묘영희 박창셔는 오늘 명수의는 장전이 아니 드러와 못 **훈다**

<명성황후 언간 059(1890~1895년):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카)>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3) 구어성(口語性, colloquialness)

① “언간에서는 편지의 특성상 **특정 청자와 대화 상황을 전제**하게 된다. … 대화 상황을 전제한 탓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여 언간에서는 **구어에 특유한 형태나 현상**이 보다 쉽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198>

※ ‘현장성(現場性, immediacy)’ (최전승 2012: 367)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현장성’(immediacy)이란 **당시에 편지에 구사된 말과 화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구어와 맺고 있는 1:1의 시간적 근접성 또는 직접적인 관계**를 말한다. 여타의 판본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의 양상은 해당되는 간행 시기와 당시 화자들의 살아있는 말과의 간극 또는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예시 : 생략(ellipsis), 축약(contraction), 반복(duplication)

- 요스이는 하 괴벼를 모르니 병이니 아히들 **호고** 엇디 인는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013(1550~1592년) : 신천강씨(어머니) → 순천김씨(딸)>

※ 구어형(colloquial form) ‘호고’

- 춘한이 오히려 심호고 브도호니 지친 근녁이니 요스이 엇디 디내논고 **브리**디 못호니

<순원왕후어필 언간 1-06](1842~1850년) : 순원왕후(재종누나) → 김흥근(재종동생)>

※ ‘넘녀’ 생략

- 병환은 오늘은 아적이나 다르디 아녀 더 나은 듯하다 하니 그러 구러 점 ” 나오면 **죽호라**

<先札 9-059(1700년) : 안동김씨(어머니) → 송상기(아들)>

※ ‘오죽호라’에서 축약

- 나리 서늘히여 가니 명디 못 기다려 **민망** ” 하니 싱월 종마를 기다리고 인노라 **모디** ” 보

내여라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053-1(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 → 순천김씨(딸)>

※ 반복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② “구어성의 영향으로 인간 자료에는 **지역 방언에 특유한 형태나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다” <200>

※예시 :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의 반영

- 이곳은 훈 모양이오느 직지의 과세호오니 봉신지감 이루 **칭양할** 길 **읍스** **오며** 세전의 강화 판관으로 의외 상환호여 이달 순간 도입호려 호오느 슈란 견덜 슈 **읍습느이득**

<송병필가 인간 03(1889년) : 송병필(남편) → 전주이씨(아내)>

※충청도 방언

- 마님 기체후 **일힝** 만안호옵신지 **벵** 복모 구” 무님하성니오며 (...중략...) 비지호신 **말심**은 쇼인의 마음에도 합당호옵고 (...중략...) 안의 가 단여온 후은 전인을 허옵던지 쇼이니 가서 문안호옵고 자셔한 **말심**을 **살불**년지 하촉 허옵시기를 바리옵네다

<고목(1894년) : 미상(下賤人) → 조병길(수령)>

※경상도 방언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③ “그러나 인간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이 실제 대화에서 사용된 ‘구어’ 그 자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인간이 특정 청자와 대화 상황을 전제한다고 하지만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채 **화자와 청자의 역할 바꾸기가 부단히 일어나는 일반적 대화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차피 **문자라는 시각적 매체에 의존하고 시공간(時空間)의 공유 여부에서는 오히려 문어적 성격과도 통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에 반영된 언어는 구어 특유의 형식이 포함되어 구어에 보다 근접한 문어, 곧 **‘구어체 문어’** 정도로 보아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료가 어느 자료보다 구어성을 많이 보이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어성 때문에 인간 자료에는 반드시 **구어 질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생략 표현**이 존재하기도 한다.” <201~202>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예시 : 인간에 특유한 생략 표현

- 알외올 말슴 하감ㅎ읍심 **지리** 이만 알외오며 내 ” 기후 쾌복 여샹ㅎ읍신 문안  
복축 ” ㅎ읍느이다 아모것도 **못** 섭 ” ㅎ오이오이다

<김성일가 언간 115(1849년) : 의성김씨(둘째 딸) → 김진화(아버지)>

cf. 말슴 ㄱ득 남스오나 **지리ㅎ와** 이만이오며 내 ” 직똥 기후 만강ㅎ읍심 축슈 ”  
ㅎ읍느이다 아모것도 **못 보내오니** 답답ㅎ읍

<김성일가 언간 057(1850년) : 여강이씨(아내) → 김진화(남편)>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 (4) 개인성(個人性, individuality)

① “언간은 특정 개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수신자가 불특정(不特定) 다수(多數)나 개인(個人)이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간 자료에서는 **개인간의 독특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어느 자료보다 쉽고 정밀하게 포착될 수 있다.**” <204>

② “추사 집안의 언간과 같이 여러 대에 걸쳐 다양한 친족 구성원 사이에 오가며 누적된 문중 언간은 자료 밀집도가 높아 개인차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언간 자료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국어사 연구에 **사회언어학적(社會言語學的, sociolinguistic) 접근 가능성을 열어 줄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8>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예시(1) : 부자간(父子間)의 언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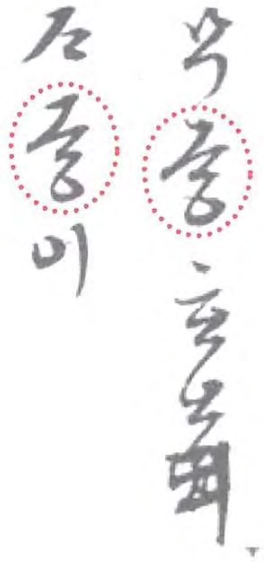
- ‘사람’: 아버지 김노경(金魯敬) → **샤름** 오와늘 하셔 밧즈와 보옵고 든 ” ㅎ오되  
 <추사가 언간 21(1766~1788년) : 김노경(손녀사위) → 광산김씨(장조모)>  
 (총 12회 출현)
- ‘샤람’: 아들 김정희(金正喜) → 서울 인눈 **샤름**은 더욱 싱각이 아니 나오시개습  
 <추사 언간 03(1818년) : 김정희(남편) → 예안이씨(아내)> (총 14회 출현)  
 → ※김한별(2014): “syV>…>sV’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예시(2) : 부자간(父子間)의 서체 차이

- '궁'의 서체 차이: 김노경(金魯敬)과 김정희(金正喜) <209>

(17) 김노경과 김정희 두 부자(父子)의 서체 차이



a. 김노경 인간의<sup>21)</sup> '궁'



b. 김정희 인간의<sup>22)</sup> '궁'

# 3. 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궁					
기계유씨 추사가/17	송병필 송병필가/01	서희순 봉서/12	정순왕후 정순왕후/01	명성황후 명성황후/074	현준 명안어필/01
밀양박씨 송준길가/038	송병필 송병필가/02	서희순 봉서/13	철인왕후(?) 봉서/27	순명효황후 순명효황후/03	효종 숙명신한첩/06
신전감씨 순헌김씨묘/013	송병필 송병필가/03	신상궁 봉서/16	김상궁 봉서/17	순명효황후 순명효황후/04	경의왕후 추사가/01
완산이씨 지순보전/05	송병필 송병필가/06	신정왕후 궁녀 봉서/24	명성 궁녀 명성궁녀/09	순명효황후 순명효황후/03	명성황후 명안어필/08
은진순씨 선세안독/27	이하용 흥선대원군/01	김노경 추사가/39	명성황후 궁녀 명성황후/128	인선왕후 숙명신한첩/23	명성황후 명안어필/10
임천조씨 송병필가/33	허욱 허욱/01	김노경 추사가/41	명성황후 궁녀 명성황후/129	인헌왕후 숙명신한첩/33	명성황후 명성황후/094
진성이씨 의성김씨가/049	권세 선세안독/14	김주국 의성김씨가/001	명성황후 궁녀 명성황후/125	장렬왕후 숙명신한첩/12	명성황후 명성황후/117

『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에 수록된 ‘궁’의 서체 비교 <211>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5) 사실성(事實性, reality/histor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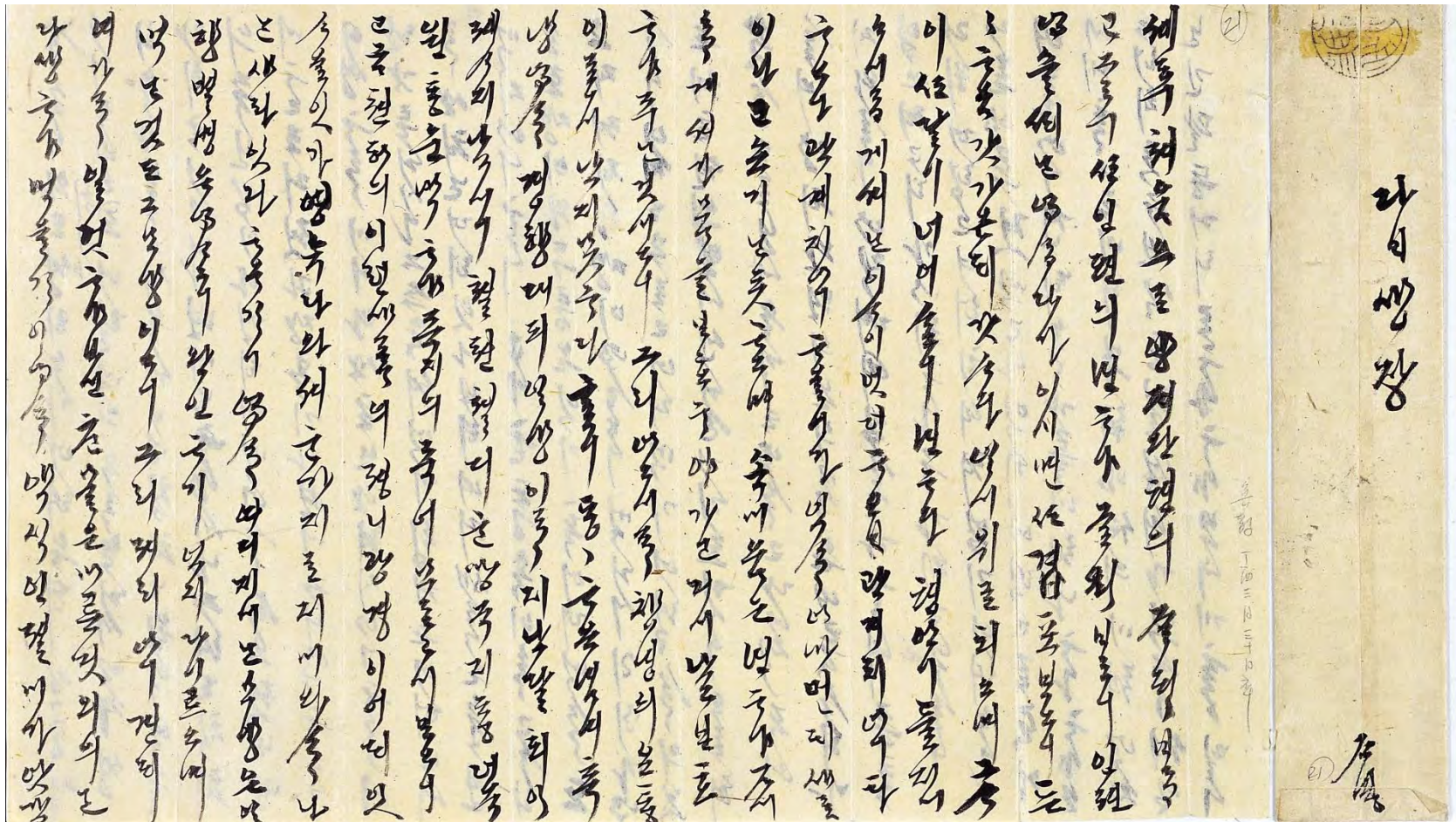
① “언간으로 일상의 생활 감정을 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연 속에는 **당시 개인이나 사회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다.” <212>

<예시>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인간의 경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한글 편지

1841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 ~ 1856)가 예산(禮山) 본가의 아내 예안이씨(禮安李氏)에게 보낸 편지







# <예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인간의 경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한글 편지



추사 김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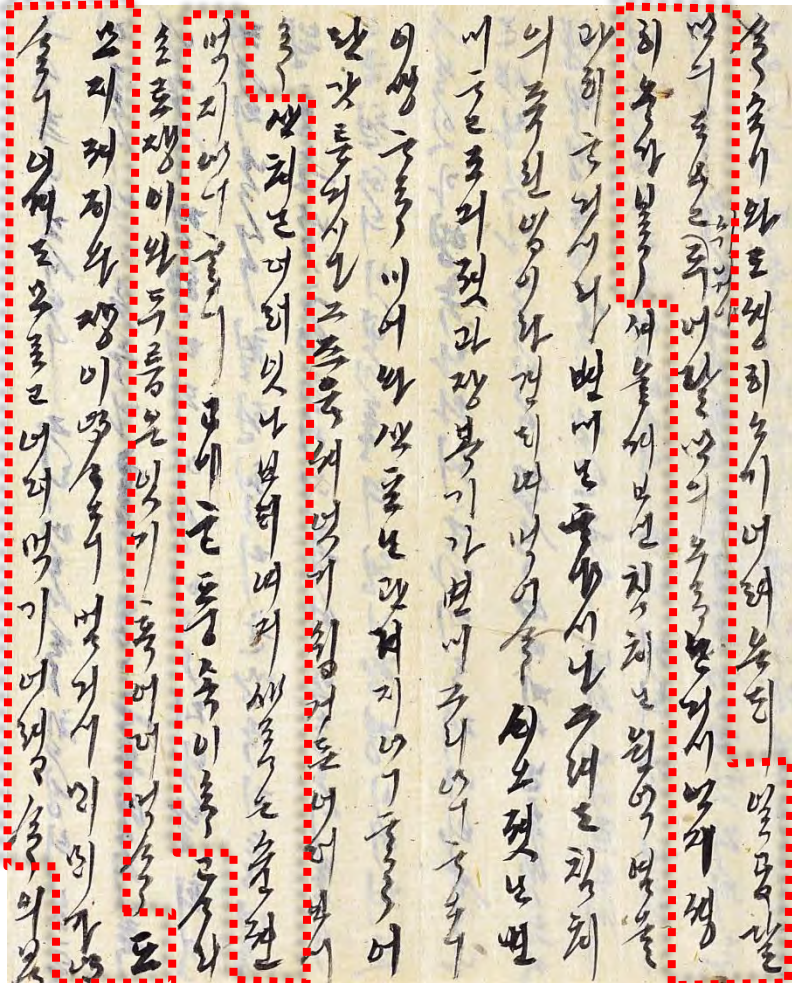
여가혹 일것 하야 보낸 찬물은 마른 것 외의난 다 상하야 먹을 길이 업습 약식 인절미가 앓갑습 (뒤에 계속)

일것 하야 보낸 찬물은 마른 것 외의난 다 상하야 먹을 길이 업습 약식 인절미가 앓갑습 (뒤에 계속)

[해석] 일것(=애써) 하여 보낸 찬물(饌物, 반찬)은 마른 것 외(外)에는 다 상(傷)하여 먹을 길이 없소. 약식(藥食)과 인절미가 아깝소. (뒤에 계속)

# <예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인간의 경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한글 편지



... 일곱 달 만의도 오고 쉬워야 두어 달 만의 오  
 읍는 거시 엇지 성히 올라 보옵 ... 산채는 더러  
 있나 보디 여기 샤름은 순전 먹지 아니호오니  
 고이흔 풍속이옵 ... 도모지 저지와 장이 업스오  
 니 범 거시 미미가 업스오니 이셔도 모르고 어  
 더 먹기 어렵습 ...

[해석] 쉬(=빨리) 와도 성(盛)히 오기 어려운데 일곱 달  
 만에도 오고 쉬워야 두어(=여러) 달 만에 오는 것이 어  
 찌 성(盛)히 올까 보오? ... 산채(山菜, 산나물[더덕?])  
 는 더러 있나 보되 여기 사람들은 순전(純全, 전혀) 먹  
 지 않으니 괴이(怪異)한 풍속(風俗)이오.. ... 도무지  
 저자와 장(場)이 없으니 범(凡, 모든) 것이 매매(賣買)  
 가 없으니 있어도 모르고 구하여 먹기 어렵소...



### 3. 인간 자료의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② “개인이나 사회의 생생한 실상이 투영되기 때문에 인간 자료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 ‘사실성(事實性)’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인간 속에서 간혹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성’에 기인한다. 이때 인간 자료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면(裏面)의 모습을 제공하기도** 한다.” <215>

③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 또는 어느 특정한 제도 아래에서 겪는 **당시인들의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전경목 2011 : 29) → “인간 자료의 폭넓은 ‘일상성’에 비추어 민속, 사회, 경제, 여성 등 **조선시대 다양한 분야의 생활사(生活史)를 보다 풍부하고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 인간 자료가 크게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 <219~220>

# <예시> 흥선대원군 인간의 경우

1882년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이 청나라에서 며느리 명성왕후에게 보낸 편지



# <예시> 흥선대원군 인간의 경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한글 편지

[봉투] 댄마누라 전

기간 망극지스을 엇지 만니 외예 안전 셔즈로  
흐올잇가 마누라계셔은 상천이 도으셔 환위를  
흐섯건이와 니야 엇지 싱환흐기을 바라올잇가  
<시아버지(興宣大院君) → 며느리(明成王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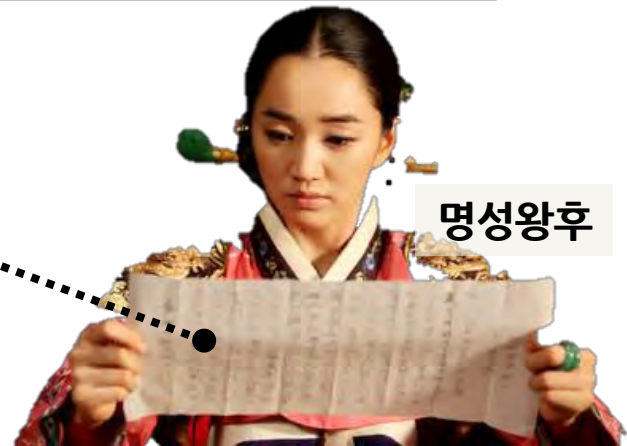
[해석] 그사이 망극(罔極)한 일을 어찌 만리(萬里) 밖에  
서 눈앞의 짧은 편지로 말하오리까? 마누라께서는 하  
늘이 도우셔서 환위를 하셨거니와 나야 어찌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라오리까?



▲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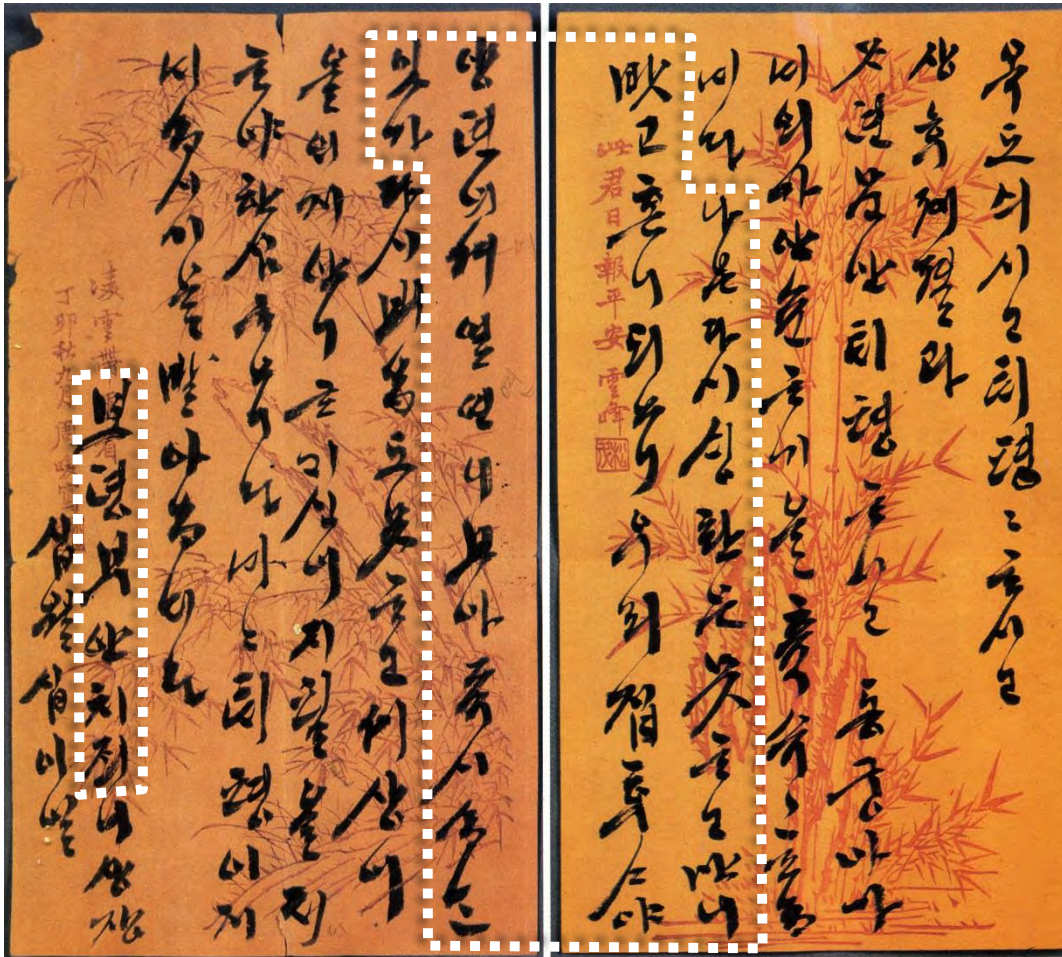
흥선대원군 (1820~1898)



명성왕후

# <예시> 흥선대원군 언간의 경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한글 편지



... 나는 다시 심환은 못하고 만나 밧 고  
 혼이 되오니 우리 집 후스야 양년의셔  
 얼연니 보아 주시옵는잇가 ... 보령부  
 안치 죄 ...  
 <시아버지(興宣大院君) → 며느리(明成王后)>

[해석] ... 나는 다시 살아 돌아가지는 못하고  
 만리 밖 고혼(孤魂)이 되니, 우리 집안 대(代)  
 잇는 일이야 양전(兩殿, 임금과 왕비)에서 어  
 려히 보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보령부  
 (保定府)에서 안치(安置) 죄인(罪人)

- 며느리인 명성왕후(明成王后)를 ‘던마누라/마누라’로 호칭하고 극존대에 해당하는 경어법을 사용함.
- 자신을 ‘안치 죄인’으로 지칭하면서 며느리에게 집안의 대(代) 잇는 일을 간곡히 부탁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남.

# 4. 인간 자료의 가치(價値)

## ① 국어사적 가치

조선시대에 인간은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용된 까닭에 인간은 한국어를 지키고 가꾸어 온 귀중한 토양이 되었다.

인간은 자료 성격상 언해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 당시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질서에 따르고 고유의 일상 어휘도 풍부하게 보여 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화 상황을 전제한 구어체 자료의 성격 때문에 경어법을 비롯하여 구어나 방언에 나타나는 형식을 다른 자료보다 쉽게 반영하는 특징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차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어사 연구에 사회언어학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 자료의 특성을 잘 살리면 앞으로 언해 위주의 판본 자료를 보완하여 국어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언간 자료의 가치(價値)

① In the Joseon Dynasty, *eon'gan* 諺簡, or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means to express private feelings of everyday life. Since *eon'gan* were widely used from the king upward to people of the lower classes, they have been precious soil where Korean language was protected and cultivated. *Eon'gan* were totally free of th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translated materials, and they reflect a natural word order and contain rich everyday vocabularies of Korean language of the time. Also, *eon'gan* were so colloquial that reflect more precisely the honorification system, dialect and spoken forms of the contemporary language than any other materials. In addition, *eon'gan* open the possibility of sociolinguistic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history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at enable precise observ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Therefore, if the characteristics of *eon'gan* are well utilized, *eon'gan* will complement the printed materials that were centered on vernacular translation, and contribute greatly to ad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researches done on the Korean language history.

## 4. 인간 자료의 가치(價値)

② 나아가 인간의 사연 속에는 당시의 실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어 다양한 분야의 생활사 연구에서 살아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인간 자료는 필사 자료 가운데 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서체를 가장 잘 반영하여 한글 서체의 변천을 구명할 서예사 자료로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인간 자료가 비단 국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 자료가 적극 발굴, 소개되는 한편 이에 따른 학제 간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4. 언간 자료의 가치(價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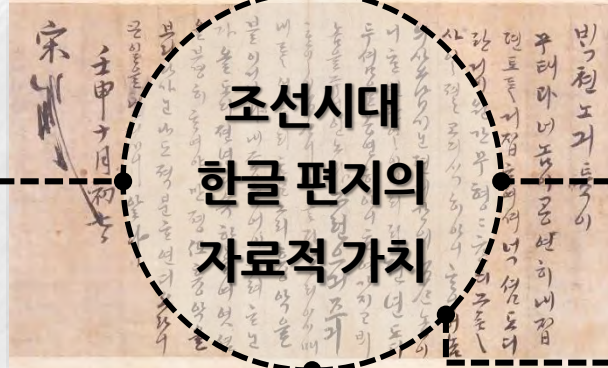
②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s of *eon'gan* display the actual life of the time, so they are also lively materials for researches of Korean living history, Korean folklore history, Korean education history and so on. In addition, *eon'gan* are well-suited as materials for calligraphy history that will investigate the change of handwritten style of Hangeul by best reflecting individual's diverse and unique styles among the manuscript materials. That is to say, *eon'gan* are not only valuable for researches of Korean language, but also can be used for researches of various fields. In the future, we should promote positively introductions of new *eon'gan* and activate further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eon'gan*.

### 폭넓은 실용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용  
→ 국어를 지키고 가꾸어 온 귀중한 토양으로 역할

### 국어사 자료

- 대화 상황을 전제한 **구어체 자료의 성격** → 경어법을 비롯하여 구어나 방언에 특유한 형식을 다른 자료보다 쉽게 반영
- 당시의 자연스러운 **국어 질서**에 따르고 고유의 **일상 어휘**도 풍부하게 보여줌.



### 생활사 자료

당시의 **실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어 생활사, 민속사, 사회사 등 여러 분야에서 살아 있는 자료가 됨.

### 여성사 자료

발신자와 수신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반드시 여성이 관여 → 당시 **여성들의 실생활**을 어느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

### 서예사 자료

필사 자료 가운데 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서체(書體)를 가장 잘 반영 → 한글 서체의 변천을 구명할 **서예사 자료**로 적합

# 5. 참고문헌(references)

- 김봉좌(2004), “朝鮮時代 坊刻本 諺簡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석사 학위 논문.
- 金一根(1959), 解說. 校註 李朝御筆諺簡集, 新興出版社.
- 金一根(1986/1991),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 출판부.
- 김한별(2014),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國語學 72, 323-365.
- 박병천. 정복동. 황문환(2012),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다운샘.
- 박부자(2014),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 연구 18, 국어사학회, 45-78.
- 배영환(2011), “조선시대 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 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57-92.
- 백두현(2001), “조선 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92, 震檀學會, 193-218.
- 安秉禧(1985), “訓民正音 使用에 관한 歷史的 研究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東方學志 46. 47. 48, 延世大 國學研究院, 793-821.
-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 연구 20, 국어사학회, 65-126.

# 5. 참고문헌(references)

- 이종덕·황문환(2012), “흥선 대원군이 명성황후에게 보낸 한글 편지”, 문헌과해석 60, 문헌과해석사, 36-47.
- 전경목(2011),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7-57.
- 최전승(2012), “19세기 전기 경북 사회방언 발달 과정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일고찰: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 연구 6, 전북대학교 교과 교육 연구소.
-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서울신문사 출판국.
- 황문환(2010), “근대국어 ‘ㅎ읍’체의 형성 과정과 대우 성격”, 國語學 58, 29-60.
- 황문환(2012), “조선시대 [남편→아내] 인간의 종결형 변화와 그 해석”, 국어학회 제3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28-345.
- 황문환(2015),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諺簡), 역락.
-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 황문환. 김주필. 배영환. 신성철. 이래호. 조정아. 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박병천, 정복동, 황문환,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다운샘, 2012.12.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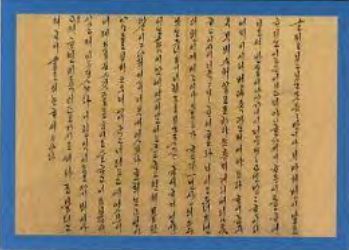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엮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3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엮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3.12.





황문환. 김주필. 배영환. 신성철. 이래호. 조정아. 조항범,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6.11.

